

설 소 원 의

杜鵑聲

성 건 두

京城普及書館發行

1912 初版
1914 7판

72

두견성서 위원소역

Inches 1 2 3 4 5 6 7 8

Centimetr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KODAK Color Control Patches ©Eastman Kodak Company, 1977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Brown Black





두견성 (상)

杜鵑聲 [上]

綠東鮮于日 著
悅子李海朝 閱

● 데일회

이층높은집에쥬렴을반쯤것고되동간건너편금슈봉허리로거진<넘어가는히를
무심히바라보는부인은나이를과열팔구세가량썸되얏는듯혹운갓흔머리를셔양제
로들어언고밧시있는반양복치마를반쯤거더잡고한가히섯는모양은아모다려보리
도무슨성각을간절히호는것을짐작할너라

벽옥갓히흰얼굴에약간손티잇는것은흠이라면흠이지만귀인성이더럭<호야누
구던지한번보면칭찬아니할슈업는인물이북풍한설에한가지를자랑호는설중미도
아니오모춘삼월하로밤찬이슬에반만핀도화리화도아니오오륙월석양던에입속에
셔은근히향늬를말호는련뜻이라할가그부인의인조호고덕잇고아담호셔품은얼굴
만보아도다시말할것업시짐작호는듯길고긴봄날이셔산락조를그러너니릉라도
푸른버들은점은연기에잠겨잇고심리장림에헝긱의자최가희쇼호던련광명성머리
에셔두어마디싸옥々々호고울고가는가마귀쇼리가뚝긋차분홍색을드린듯호구

름두조각이 금슈봉우호로써을으는디이층집우에무심히섯던부인은그구름가는디
만바라보고잇더라

두손으로탁붓잡엇스면도홀듯홀구름은완々히금슈봉위를떠나위로쓰듯홀반공중
던을금나뿔하쌍갓혀가는듯이모록< 디셔산편으로흐르는디히가떠려져황혼
이되자그구름이자주빛이되면서아리우호로흐터지더니아릿구름은점々가늘어지
다가별안간에형지도업셔지고깃구름은다시회색이되얏다가몽롱던디에그만후지
부지흐더니

필경에는산천초목이다만한빛이되야어두감々하고무심히섯는부인의얼골만방불
홀티엇던로파가

● 데이회

〔로파〕마님지금이야와답니다아이고감々히라마님씩셔어티게신가

〔부인〕으나여귀잇네

〔로파〕웨거괴그저게셔요어셔드러오심시오감괴드심니다령감마님은아죽도아니
오섯습닛가

〔부인〕엇더케되섯는지알슈가업스니주인집하인더러좀가모시고오리쓰면……:
〔글세요〕

하고로파가두손으로더듬어셔냥을찾더니람푸에불을켜놓더라
오라자아니할야주인집아히가일봉셔찰을부인압해다니여노면서

〔이것이셔올셔온편지인가보아요〕

〔부인〕으대감씩셔할신편지구나어셔오섯스면이편지를좀보시렸마는
하고다정스럽게그편지것봉을이리뒤쳐보고더리뒤쳐보더라

주인집에으히는스면으로열어져첫는다락문을덜켜< 닷고너려가는디로파는무
슨보작이를별작문안에다드러르리고부인에것호로와셔움크리고안자며

〔로파〕미우춍습니다셔올과는관히다른걸이오

〔부인〕그러키에지금이습월이십일세인디살구땃이겨오피지안나할멈이리로갓가
히안쎄

〔예〕

하면서로파가부인의얼골을물그름이보고하는말이

〔세상이썩결갓습니다이러케장성할신것을보며할멈의손으로길너넌어룬이라
고홀수업습니다친덕덕로마님이이세상을하직할실씩에할멈잔등에셔어머니

< 하시고우시든일이엇그제갓더니

하고두눈에서눈물이핑그르々돌며또하는말이

방랑적기

[부인] 그런티 어디서 지구경하섯습닛가

[양복] 을밀디에올나릉라도연기물건을너려다보고다시던금문을나져부벼루에을 낫더니귀스결에세썩리쇼리를듯고한거름두거름간다는것이주암산을다지니여 연々흐방초를방석삼아쌀고도안스고향기로은뜻을어엽버셔썩거도보다가별안 간디즈릉을구경할싱각이나셔모란봉을에둘너디즈릉에올나갓더니우리동방성 인의음용이적막하고것천언덕에쳐쳐흐를뿐이라즈연감구지회가나던이다

[부인] 그러면나도한번가구경하얏스면

[양복] 그연々약골이나갓든티를다가고보면성상폐하썩서일등훈장을주신다는디

[부인] 그러케넘오업수히녀이지말으시오보기는이러히도이왕학교에서는데조운 동호얏답니다

[양복] 어니학교의레조운동가지고야얼너불슈나잇나으응언제인가참좌죽녀학 교에구경가닛가검은고인지무엇인지똥쌈<똥다리며한편에서는「동원출산 에방초록음이」엇지라고노리를부르면서운동장을왔다갓다ㅎ기에나는무슨가 무나니히는줄알앗더니오이라그것이레조운동인것이로구면하.....

[부인] 험담도몹시ㅎ서네

[양복] 을치<<그씨에다가과천의설과갓히셔々녀학도의복장을넙고줄넘기를ㅎ

든것이필경혜경씨던게야

[부인] 하..... 더러말씀보아그런티강과천이란사람을아르셔요

[양복] 강과천은아부지살어게실씨에항상와잇든문직인디지금도간혹오는걸..... 그런티그만아모디답도다시못ㅎ는구려

[부인] 하..... 별말씀을다듯겜네

「호..... 그러케두분이다토시면안됩니다자... 이것이화의ㅎ시는차이올시 다」

ㅎ고차두잔을부오늦는것은심복갓고슈죽가흔유모로과이더라

● 데스회

전회에양복님은남즈라ㅎ는것은륙군정위리봉남이라ㅎ는화죽인디맛츨터딩인연 이잇서가성이혁々흐륙군참왕창동의맛설혜경과빅년가약을미즌지가불과월전 일인디잠잔한가흔름을타셔신부와신부의유모되논할멈을다리고사오일전에평양 으러히을온것이라

혜경은여달살먹든히에모친을여흰지라그씨즈기모친의용모는력々히기억할슈업 스나항상웃는상을ㅎ고게시든것과림종시에즈기를불너서상긋々々썩만남은손으 로즈기의조고마흔손목을잡고「혜경아어미는먼디로간다어셔커서아부님을잘섬

서는 짐작 못하니 그것도 생각하면 역시 그대를 사랑하는 쇼이라 그런고로 모친의 압해
 압해서는 눈알이 쏘다 지게 썩었다가 도다 른 뒤 서는 도로 허저기를 위로하니 의정이 깊
 흐신 부친이 남몰르게 이 쓰시는 것을 령리 흔해 경은 심분 짐작하야 이 몸이 분골쇄신이
 될지라도 아무썽록아 부지를 위하야 서는 진심 갈력하리라 하고 항상 생각은 근절하나
 만일 외면에 낫하되 고보면 속으로 죽일 년하느니 어머니의 눈사동저가 무섭고 아모의 식
 도아니 보이고 잠잡고 물은 체하고 잇스면 도로 허심다가 물량하거니 아모철도 업거니
 하는 말을 듣는 일이 이 처로 은 바이로 다어느씨는 무슨 쇼고 만흔 일로 써물 흘으덧하느
 쇼진장의 두구변에 다서 양학자의 론리법을 가지고 일장연설을 하는 뒤 저의 썩안이라
 도라가 신어머니 저지건 뒤 리는 김에 넘어도기가 막혀 긴히 봉하얏던 입술을 열고 저
 항던 초에 마루 뒷호로 올나 오시는 부친의 그름저를 보고 입술을 다시 봉흔 일도 잇스며
 혹은 남오도 무리흔 말을 하기에 「어머남도 넘오과하십니다」 하고 썩방에 드러가서
 남몰르게 눈물을 흘인 일도 잇는 지라

이 몸을 사랑하는 부친은 폐시것마는 남저도 안이 오게 짐으희에 가는아부지 열보다어
 머니 한아이 데일인 뒤 그러케 데일되는 어머니가 이러하니 십년 동안에 믿음은 저가 되
 고 형용은 고목이 되는 것을 엿지 면하리오 숨흐다 똥밭해심으나 동산에 심으나 씻은 일
 반이라 어느 것이 햇빛을 기다리지 안이하리오 마는 해경 쇼저는 실로 스시 장런 햇빛을

보지 못하는 그늘아리 씻이로다

그런 뒤 이번 에 리참장의 집과 동흔이 되야 성례를 행흔 이후에 유모는 혼인 처장의 솔략
 혼것을 불쾌히 녀여, 선마님 생각이 이런 식에 더욱 근절하 지하고 흘려서 울드리도
 해경 쇼저는 총々히 녀집 문턱을 썩나느니 이 썩지아지 못하던 저유와 쾌락은 당장 목
 전에 잇스려니 하고 생각하면 부친의 슬하를 썩나느니 섭々함도 도로 허위로 가되는
 도다

● 데오회

재수회

평양은 조선에 데일 강산이라 물식도 신선하고 경치도 절승하야 뒤에는 부용이 편듯흔
 봉만이 오압해는 룡라를 펴노은듯흔 강수로 다일은 봄불탄 잔디속검웃々々하게 된 흙
 에 서 멈들네, 썩다 지어러 가지 풀이 방춘화고 조흔 시절을 만나니 흘々々하느니 모양 프
 른요를 잔듯흔 뒤 곱고 고은 각석화 초는 잔々히 피엿스며 갖는으희 주먹 갖흔 고사리는
 여귀더귀웃독々々나와는 뒤 흔번여귀서 산보하면 길고 긴 봄날도 니져 버릴 만흔 곳이
 라리 정위의 부々는 일난 풍화흔 뒤 춘경을 담고 저하야 유모와 주인 집계집하인을 다
 리고 뒤 성산사지와 서각석산 처와 고사리를 키러 든이다 가몸이 좀 피곤하얏던 지계집
 하인이 가지고 왔든 담요를 풀밭우에 다 깔어 놓코리 정위는 양해를 신은 뒤로 담요우에
 가락 두러 놓고 해경은 들메 엿던 메 드리 버셔 놓코도 흥식 슈건으로 버선발을 두세 번

특々덜더니담요한편머리에가팔척안즈며

〔혜경〕의고－이쳐러위라이연々흔풀이담요아리가쌀니엿네

「이사이에마님신상이미우도와졌셔요... 창가를향여보산지도참오리되
섯습니다」

향며유모로과가반가온괴식으로혜경부인의얼굴을치어다본다

〔혜경〕창가를넘어불넛드니미우갈히졌네

「아무것도시원하계잡수실것이읍습니다」

향고계집하인이보작이를풀더니굴,과즈,등속을뉘여놋터라

「암,이것만잇스면그만이지」

향며리정위가양복쥬머니에서도고만갈을쓰뉘여담요우에노인굴을얼십즈로버혀
노으면서

〔리정위〕혜경씨는피곤하지안으시오

〔혜경〕안이오오늘은조곰도피곤치안이향오이다니가이러케유쾌히놀기는처음인
가보오

향고먼산의경치를바라다보다가리정위의무릅우에가만히손을걸쳐놋코한숨을쉬
면서

〔혜경〕언제사지던지이려고잇섯스면

누른나뉘한쌍이혜경의웃소미를근디리고떨々날어간뒤로풀을뵈고오는말자최가
소리나더니모즈를눈섭사지니려쓴자가단장을해々두르면서리정위의압호로성큼
올나온다

〔그자〕여보게리정위

리정위가마쥬이러셔며

「어－자네웬일이가엇지향야여괴를왔든가」

● 데류회

서로운남즈는나이불과이십륙칠세오역시륙군위관의복장을넛엇는디군인중에는
신수덜씀흔호남즈이로디다만흙슈경갓치시샘은눈알이번적／＼향고두볼에심술
이썩썩떠러져셔아모더러보리도단정흔스름이라고홀슈업슬만하게된위인이라그
남즈는리정위의고모스촌되는조정위라하는자－오당시친위디본부에잇셔미우슈
단잇다는남자－라

〔쥬〕이러케갑작이왔스닛가디단히놀남갓지마는맛참근관의일이잇셔황쥬에서자
고오늘아침에평양사지왔더니이곳풍경을구경코져향야잠시류람하는중인디자
네류하는려관을가닛가여괴로놀나왔다향기로길을가라쳐달니셔왔네그런디

자네자미있게노는디방하나안이될는지하.....

〔리〕그것이무슨말인가.....그런디자네가일자이후에너집에가보았는가

〔조〕어아츨에잠잔던여왔는데아주머이도안녕히계신모양이데그런디자네가어서

오지안는다고말씀하신다데또약현덕도다티평히신데다

하면서후슈정갓흔눈동지가혜경쇼저의얼골로도라가더라

앗가브터벗그리움을씩엿든얼골이도흥식으로변한엿든혜경부인은쌍만드려다보

고있더라

〔아이에그, 더령감마님은엇더케하여여그를오셨서요〕

하고유모로파는쌈짜놀내는모양으로얼골을도리키고코우습한번을훈후에다시하

는말이

〔리〕무엇혜경이도가서요여과더잇스면엇덧쇼

만류함을못익의여혜경은찌러져잇고유모와게집하인은짐될만흔담요, 산치등속
을슈습하야가지고가더라뒤에찌러져잇는제스름은다시산치를키다가완완히도라

오는디석양이저산하야길좌우현의화초빛은쥬황물을씨여언즌듯여과더과션교송

나무그름즈는길쪽 / 두이쓰석삼삐를그려닌듯흔디눈을들어본죽먼산은락조에

조는듯하고져녀연과는여과더과셔무역무역나러나더라

리정위는조정위와나란이셔서리악이를하면서가는뒤로혜경은삼스보를찌러져가

더니쇼고마흔언덕을넘어산그름즈에웃속흔석양산곡으로나오다가리정위가홀연

히가든길을멈추면서

〔앗츨, 단장을니져버렸네아마앗가안져서수이든데다노앗나보다여과셔좀기다

리게한다름에갓다올더이니.....으 / 혜경이도여과셔기드리오전속력으로갓

다오리다

하고손슈건에싸드러던산치를길가에다던지고다름박질로언덕을너려가더라

● 데첼회

리정위가간두에혜경은조정위와슴스보를격하야말엽시켰더니리정위가한구렁을

건너고한언덕을넘어점점쇼고마하게보이다가다시언덕하나를넘어가는디그제는

그름즈도엮서지는자라

〔조〕여보시오

리정위가는디만바라보고잇든혜경은여보시오하는소리에쇼름이쭝쭝치다

〔조〕여보시오

한거름을다거드러오면서부르는데혜경은두세거름을물너가면서얼골을들었다
가그후슈정갓흔눈이유심히건너다보는김에다시외면을향했다

〔조〕감축합니다

혜경은아모말업시귀밧치지도홍식이되는데

〔조〕감축합니다다참감축합니다그러나그갓치감축하지못흔놈도어디잇는가보오

혜경부인은똥만드려다보고집황이삼아집혔든식양산뜻흐로길것헤는풀씩리를무

심히속속속시키고있다

〔조〕여보시오

외나무다리에셔웬슈를맛는혜경은부득이향야얼골을들었다

〔해〕웨그리흥심닛가

〔조〕문벌뫼코돈만흔것이지금세상에데일이시오참감축합니다

〔해〕무슨말씀이야요

〔조〕예—문벌뫼코돈만흔사람은엇더케되얏던지계관이업고돈이업스면당시영

웅호걸이라도별수가업쇼구려지금은그러히야영경부인노릇을함난다그러나혜

경쇼져다려그리흔단말이안시오

혜경은그말을듯고가슴에셔두박망이질이나며얼골빛이토식이되면서조정위를힐
끗치어다보며

〔해〕무슨말씀이시오넘오과할시구려웨사나히답게너아부지흔티의론한마디못하
야보고무례하게사정편지를너게다보너... : : 이다음브리는결단코용셔할슈

업쇼

〔조〕무엇이야요

하고보기슬케눈쌀을썩흐리며입쌀을감쳐물고한두거름을갓가하나오고져하더라
홀연히말모는쇼리가언덕아리셔나더니웃도리만보이는마상식이언덕우흐로마를

모라올나오며

〔해〕빗겨셔시오다침나다빗겨셔시오

하는덕한륙십여세된마상식이두손으로치켜잡엇던자갈신을왼손에다모라주이고
이상스럽게두스름의거동을도라보면서지나가는지라

조정위는앗가섯든덕로썸썸안이하고낫살을펴며셔감쳐물엇던입살을열어선우슴

두어마디를썰々웃더라

〔조〕흐—그러케보기슬커든돌너보너시시오

〔해〕무엇말씀이요

〔조〕 무엇이 무엇이야요 그러케 슬러하시 는 것 말씀이지요
〔혜〕 나는 모를 말씀이야요
〔조〕 웨 몰나요 당장 말을 하고 노물나요

〔혜〕 응그런 더러은 것을 잇디그냥 두어 요화로 스불에 넷코 말었지요

〔조〕 정말 숨이 오다른 이는 별로 허본이가 덩녕 업슬가요

〔혜〕 업숨이다

〔조〕 정말이오

〔혜〕 망측도 하여라

하고 혜경은 눈썹리가 찌여 지게 조정위를 건너 다보다가 별々 열리는 몸을 겨오진정하
야 먼산을 바라보다 더니 맛춤그씨에 구렁건너 편 언덕우 흐로리 정위의 올나오는 것이 보
임이 혜경은 반가온 김에 쌓이 새지도 록한 숨을 쉬더라

〔조〕 여보시오

〔혜〕 ……

조정위가 쿠안스 김에 리정위만 바라보고 섰는 혜경의 눈치만 보면서

〔조〕 여보시오 이제 한마디 열줄말은 다름안이라 말씀말으시고 무엇이던지 비밀히 하
시오 리정위에 게 든지 친 덩딕 두분에 게 든지 만일 루설 하얏다는 후회 할일이 성립년

다

번적) 하는 눈으로 혜경의 얼굴을 건너 다 보든 조정위는 반마름안져서 길것헤잇는
풀뭉을 싸서 모아 쥐는 디구드 소리가 저벽) 하고 단장을 해々 닢들 으면서 언덕을 올
나오는 리정위는

「에구—숨차, 한다름에 갖다 왔더니 그런디 단장이 그 자리에 그저잇서」

하고 혜경을 건너 다 보더니

〔리〕 혜경은 웨그리 오일골빛이 미우듯 못하구려

조정위는 방금싸서 모아 쥐엿든 안즌 빙이 뜻을 양복단추구멍에 다 싹즈며서

〔조〕 안일세 혜경씨게서는 자네가 더디오닛가 후길이나 일허버렸나 하고 녀우걱정하

서々 그러하네하 ……

〔리〕 그런가자—인제는 천々히 가보지

세스름은 석양산로에 갖든 길을 다 시 말바 평양성니로도라 가더라

● 데 팔 회

오후 세시에 황주 덩 거장을 떠는 괴차이 등실한 모둥이에서 다른 사름업는 것을 다 힘이
녀이 고구두신은 처로 걸스 상우에 말을 셋치고 권연을 펴々 쌀면서 혼스 신분을 보고 잇
는 자는 조정위라

보든 신문을 해니던지면서

「과가 막히다」

하는김에입에물엇든권연이힘이업시뚝뚝러지니골썸에발로발바문지르고류리창
박그로출을래々밭다가그냥물크름이섯더니혀를썩々차면서이등실한복판을두세
번왔다갓다하다가다시겉스상에가걸어안저팔스장을씨고눈을스르々감는뒤시샘
은눈섭은한일씩모양이되엿더라

조정위는조상부모호자이라저의부친은충청도의반죽인티경장이후디방쪽도에게
죽고저의모친은조고여섯살되든너름에그씩은과란이오지금은호렬즈라하는병에
죽엇는뒤여섯살먹은어린히가저의당고모의손에서기러나스니조정위의당고모
는곳리정위의모친이라

리정위의모친은조정위를부모업는히라하야얼마큼불상이녀엿스나리정위의부
친은미우성가지게아던터이라어려서버터서름밭고자라는조정위는리정위갓치부
모잇고저산만코문벌도흔터도못되는고로전혀니지혜와늑능력을가지고이세상을
지낼슈반개업다하고리정위를위하며당고모부를불쾌히알더라

더는이세상에처하는길이란과거족의두가지가잇는것을씨다른고로엇더할경우에
든지첩경을말바나아가기로결심할지라그런고로당고모부의덕택으로육군사관학

에서공부하는동안일지라도동학하는사람은시험이우등이니라데이니하고서로경
징을하는뒤조정위는저보다선진자에게도교제를만히하고동제잔에도교제를저지
안이히셔니게히롭지안이할만자리를탁하야다른사람들은졸업장을가지고도뚝
々씩이것마는조정위는발서길을엇어육군정위가되얏더라갓치공부호스름들은여
기더기의참위가되야조련을홀다행군을홀다홀지라도조정위는친위분부뒤청우에
서담비나피여들고롱담으로세일을보낼적에군국티스가귀에드러오는지마는지하
더라

그다음에는암전환자리에장가들싱각이잇스나외손벽을기어렵다고사름이출신하
는것도도흔인연이잇서야하는줄은아는조정위는비록호적식리는안일지라도모대
관은모대관의스외모고등관은모중신의스외오모지산가는모대산의아들의양부이
오모실업가의스들의쳐도모저산가의딸이라하고가만히손가락을삼으면서여기더
기들너보는눈은필경육군부장왕창동의집으로도라간다왕부장이라하면당시에는
휴직중에잇지마는전국년에명망이차특하고도량이활달하야황상폐하씩셔도미우
스랑하시는터이오실로국가의간성지장이라할만홀지라조정위는왕부장의세력이
전국년에엄지가락되는것을보고그집에데일친근할엇던티관을쇼키하야밤나뒹디
령하다심히하다가필경후슈정갓흔눈으로그집맛살헤경쇼저를엇보앗더라첫지는

왕부장이혜경쇼저를가장사랑하는것을알았고돌지는왕부장의후실부인이혜경쇼저를가장박티한야어티든지흔쳐만잇스면어셔치하라는니용을알었고씻지는혜경의요도흔성품과기결혼과질이색니모음에합당하다하야일단정신이곳그규슈에잇스나그러나가만히형편을보건티왕부장은평일에희로이락을용이히스식에나하느지만는활달티도의스름인즉엇더캐싱가홀년지측량지어럽고그부인에게는잘쥬션을할면십상팔구는소원성취가될듯하고들저들의일흥은옥경인티금년에열다섯살이라특별히나를싸르고그아리는다후실부인의소싱인티아달두홀이있다홀지라도이것은문데بات기오다만혜경을젖먹여기른유모로과가전실부인씩브터잇셔지금후실부인이시로히드러와제반가스를다변기하는셔도왕부장의잔청으로한아남어잇든로과이라이로과가항상혜경의것홀셔나지아니하며즈기를무단히도와하지안는것이얼마콤방히는된다홀지라도당조되는혜경이만니품속에들게하면그만이라하고일년동안이나기회를엿보다가종시결티지못하야어느날연회에갓다가술잔이나먹은김에왕청되게사정편지한장을써셔여러번봉하고것봉에는너편네글씨로써셔우편동에다너어혜경에게로보니엿더라

그날명령이잇셔갑작히디방으로출장을하얏다가석달만에도와본즉즈기업는사이에혜경은중추원의장권씨의중미로하구만홀사를중에하필즈기의척종되는리정

위와발서결혼식을거행하얏는지라조정위가분하고화나는김에디방에서브터다정호편지회답이와잇스려니하고흔즈모음에얼마콤깃거하야션스물건으로사가지고왔든릉라금쥬를씩씩쳐져서쓰레기등에다쓰러너엿더라

그후로조정위는편군지장이잔병을다시슈습하듯인하야즈기의몸을보호하고즈기의모음을곳건히하되다만항상못닛치는사정편지홀일한가지라만일혜경이가더의부천에게나또는리정위에게루설할것갓하면장리의큰일을랑피홀념려가잇는티혜경쇼저의성미를즈기가디강짐작하건티혈마그럴리아잇스라하면셔도모음에미양왕리하든츠에맛츨황쥬에일이잇셔갓다가평양에서두류하느리정위의부々를차자보고그동정을습힘이더라

「리정위리정위」하고누구가부르는데듯흔소리가지스결에들니는김에조름을번씩씩견조정위는류리창으로니여다본즉기차는방장기성덩거장에도착하얏는티역부들은「기성기성」하고씩씩들면서왔다갓다하더라

조정위는기가막혀흔즈종얼／＼하면서다시너러나두어셔너번이등차스간을왔다갓다하다가이상스럼게몸짓홀변을하고의즈에가도로앗는티은근히선우숨치는모양이눈이나입살에나트하나더라

기차는또기성을떠나셔비호갓치다라나는티그사이에덩거장몇곳을지나룡산역에

와도 착한 오륙인이 입장권을 사가지고 분주히 증실로 드러오는데 그중 나히한 오십여세 된 자 한 아이 찬찬히 복에 올흔 편에는 금시계스 줄이 오원 손에는 금반지라 눈썹리가 축 처지고 원눈아 리 샘 웃음은 금한 아이 완연히 디 쟁위를 보고 허리를 굽

실하 면서

「아! 쟁위어디를 갔다 오시는 길이오」

하고 쟁위의 고향 가 락 걸쳐 안는다

〔조〕 황주사지 갔다 옵니다

〔그자〕 지금 황주셔 오시는 길이오

하고 쟁위의 얼굴을 바라다 보다가 다시 말스 소리를 나 즉히 하야

「여보별로 급한 일이 안게서 거든져 녀 밤이나 한번 갖히 먹습시다」

쟁위는 고기를 싹데 < > 하더라

● 대구회

룡산등거장에서 내려 그다지 멀니 가지 안이 하야 셔 조고 마흔 산문이 있는데 그과 천의 별더라 쓴 표목을 안이 볼지경이면 었던 사람의 료리 덤이라 할 만 할 집제도 오그렷치안 으면 흥모 전이나 쌀고 화투장이 나 여디 더디 썰러 쟁스면 화류장이 라 하 기 덕 당 할 만 할 이 총집안에 부러던 등은 켜지 안이 하고 램포 한야 를 노 앓는 디 비 반이 램 자 할 자 리 에 처

상 다리를 놓고 램 락 히 드리 안는 자는 쟁위와 덩 거장에 나 왔든 눈썹 리 처진 자 인 즉 못 지 안어 도 그 집 주인 강과 천 인 줄 알너라

무엇이 비밀 하던 지 고향 해는 사 환한 아도 업고 주인 자의 압 해는 조고 마흔 슈 럽에 연 필을 걸 쳐 노 앓는 디 여러 스름의 거 주 성 명을 만 히 괴 롭고 연 필 로 여 러 가 지 표 를 향 앓 스 되 똥 구 리 네 모 세 모 가 나 다 초 서 六七八의 수 쓰 후 은 셔 양 수 쓰 덤 씩 은 디 도 앓고 한 번 지 었 다가 다시 살 난 것 도 앓더라

〔강〕 그러 면 여 보 그 것은 그 렷타 하고 아 조 작 덩 되 거 든 곳 알 개 하 야 주 시 오 | 덩 녀 코 어 꺾 업 슬 러 이 지

〔조〕 밭 서 디 신 의 손 아 귀 에 드 러 가 앓는 걸 그 러 나 경 정 즈 가 있 서 향 상 운 동 을 향 는 모 양 이 니 이 왕 것 도 얼 마 큼 운 동 비 가 있 서 야 지 이 것 보 오 이 놈 이 아 조 먹 지 못 할 놈 인 즉 자 같 을 단 스 히 물 니 지 안 으 면 안 되 오

하 면 서 쟁 위 는 슈 럽 에 쓴 성 명 한 아 를 가 르 치 더 라

〔강〕 이 것 은 었 던 가 요

〔조〕 그 놈 은 말 못 할 놈 이 오 나 는 잘 아 지 못 하 지 마 는 미 우 완 고 흐 놈 이 라 는 디 잘 못 하 다

가 는 램 꺾 을 벌 이 오

〔강〕 안 이 륨 군 중 에 도 룩 스 지 안 은 사 름 도 있 거 니 와 참 말 할 나 위 업 는 자 도 있 서 작 년 이

던가근위디의군복용달을하느디요전계척되로하야되키무스히된것은다행하지
 마는더ㅣ무엇이라든지구레나룻난디장한아이잇섯느디컬즈가이러니더러니하
 고잘드러져지안는모양이기로집의하인으로하야곰이전과갓허과즈상즈를보닐
 죽컬자가늬라져되물을밧는단말인가군인의테면을손상한다는등무수히호동을
 쎄다가필경과즈상즈를발로차던지닛가그상즈웃증만마른과즈오아릿총은돈이
 라더옥노과가등々히쳐서더러우니고발을하느니하는것을겨우결말은지엿지마는
 디단히힘드렸든걸그런작즈가잇기씩문에일갓지안이흐것도그러케곤난하여참
 리정위갓흔이도역시그모양인디도더히말할슈업셔거번에도ㅣ

[조]리정위갓흔이는더의아부지가여러만원저산을만드러노앗스닛가완고하든지
 정직하든지말할것업지마는우리네야슈단한아가지고형제하는것이안이오

[강]아ㅣ정말니저버릴번히군

하고조정위의얼골을흘긋치어다보더니죽기속에서심원스르리지화다섯장을쓰어
 녀여

「그것은추후에무엇하량으로하고위선인력거갑시라도」

[조]그리하오아직밧어두지

하고속죽기에다집어너으면서

「그러나여보ㅣ심이지안은종조는나는법이업스닛가……」

강과천은빙긋우스면서조정위의여기를툭치고

「령감안이면누가하여니겟소참가석흔일이지발셔주계과장썸은일업슬것인디」

[조]그러키에모스는저인이라는말이잇지다하는슈단에달인것이안이오

[강]그러나여보오아모썸죽주의하시오잘못하다는랑피하리다

[조]아모념녀말으오자ㅣ그러면일잔아는디로통괴할것이니그리알고계시오

[강]예ㅣ아모썸죽잘쥬션하시기를바랍니다ㅣ너즈도잠간인스를하러나오깃지마

는니살의것을잠시도떠날슈가업셔々

[조]웨딩희가랄이낫소

[강]병든지가달포나되여셔너즈가다리고이리로왔지오여보요가속잇는것도겨정

입데다아모루업기는독신이데일이야요하……

조정위가들아리셔주인과작별을하고강과천의별대를떠나가더라

● 데십희

강과천은조정위를작별하고안스방으로드러왔는디더편장지를뜯열더니머리털이
 드뭇／＼하고압니두기가덜니박이로된녀편네한아이드러와서강과천의것티가안
 는디나히은불과한스십여제되얏더라

[덧니] 죠정위는 밭서 가섯서요

[강] 응- 방금 쫓차보니 었지 그리 덩희는 좀 었더히

덧니 박이 너편네는 길 단얼골을 설네 / <흔들면서

[덧니] 참더으히 썩문에 큰일 낫습니다 오늘도 여보무엇이 좀 성가시다고 하더니 차스 잔을 너여던지며 옷을 쓰저 버렸답니 다나은 불과 열여들살에 참 큰일 낫셔오

[강] 참민망한일이야

[덧니] 여보 오불상 합데다 참 불상 하요 오늘도 여보 취선이 더러 그러케 말하드라오 참 말무정 할 사람은 리정위라고 작년 정월에는 양말도 만들어 드렸고 그다음에는 슈노 은손 슈건도 드렸고 또 모사장 갑도 슈등속도 만들어 드렸고 그뻐안이라 금년 정월에 는 붉은모사로 속옷 사지일거드렸는디 아모 쇼식이 업다가 더편협하고 심디 불량하 고 교만 할헤 경에게로 장가를 드렸스니 참 불량한 사람도 있어서 구름슬고도 몹스러 라니 가과천의 딸이 어든 아모러기로 헤경이 갖흔계집으하만 못하단 말인가 참모 즐고도 모즈러 하 면서 우렷다오 그러케 생각이드러 갖는디 아모러케 하 여서라도 제 소원을 일우어 주었스면이오, 여보오

[강] 공연히 쓸디 업는 말을 하는 구면 용뵈잇는 장사아리는 약 혼군스가 업다는디 그디 는 불과 덩희의 어머니 지오 리정위로 말하 면서 양반 일저라도 지산도 잇고 또 리정위

가그다지 못나지 안이 하얏스닛가나도 덩희의 혼인을 아모 쫓록 그리로 덩희라고 의 도써보았지 마는 될일인가 밭서 혼례사지 지닛스닛가 이것더 것 할것 업시다 락망이 지헤경이가 죽는다던지 리혼이라도 하기 전에는 할 슈업는 것 안인가 이와그러케 된 일을 생각하야 소용 업스닛가 다른디 덩희는기로 단념하는 것이 데일이 지용렬한계 집으히도 잇서

[덧니] 여보 오무엇이 용렬하단 말씀이오 웨니 딸은 헤경이만 못하다는 말씀이오

[강] 니가 덩희다려 었덧다고 하오니 계도즈식이거든 웨소원디로 하 여줄 생각이 업스 리오마는 소용 업는 말을 회설 슈설하 지 말고 달니 얌전 혼곳에 편안히 살날 할데로 보 니라고 이려는 것이 오두리가 서 잘 호유나 하야 보옵시다

하 면서 가과천의 니외가 자기의 딸 덩희의 방으로 향하야 가더라

가과천은 누구인고 하니 그 소종티는즈세히 알 슈업스나 당시는 세상에 서알만치 명에 잇는 산분이라 출세하든 처음은 이작고 인혼 리정위의 부친의 신세도 만히 지고 지금일 지라도 리정위 집을 할상 출입하는디 리정위 집이 량반중에 도지 산가이닛가 그리 혼 다는 사람도 잇거니와 그것은너 무과하 게공론하는 말이라 본집은 성년에 다 두고 별장 은룡산 근처에 두엇는디 이전은 종로에서 포목 전 영업을 하다가 어느디 관을 친근하아 는 탓으로 과천군 슈차함을 었어 하 고 지금은 전허군 부와 기라 각 관청의 용달로 위 업하

는 덕이들은 미국 포스톤 상업학교에 보낸 여류 학생이고 딸 덩희는 몇출전까지도 귀족 학교에 단엿고 처는 어느씨에 엿더 케어 덧는 지다 만 목포 녀편네라 할 뿐인 터나 짝이 보기 슬 케 칭간 것을 강과 천은 금슬도 케 잘도 지닌다 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실은 무엇이 라 무엇이 라 하고 일흥잇는 녀편네들을 각 처에 처가 하여 두고 번 차례로 도라 단이는 강과 천을 기다리고 잇는 것은 무인부지로 다 아는 바이다

● 데십일회

락 조우에는 검은 교양금 등속이 오척 상우에는 국한문서책을 노앗고 머리맛에는 경티와 데경이 잇는 티삼잔넙은 방에 검은 구름갓흔 머리를 푸러 헤치고 가로 누어 잇는 계집이히는 헝년이 십팔세라 얼골 빛이 희고 하관이 풍만 할 것으로 볼 것갓흐면 어엿부다 고 도 할 슈잇스나 썸의 뒤룩 / > 하는 살이 금방 찌러 질 듯 할 터 한번 여럿든 입은 다 시담을 고져 하여 도 임의 롭지 안이 흐모양에 항상 건순이 되 앓고 잇는 듯 업는 듯 혼 눈섭으리 가 너 무릉사하고 눈정신은 봄날에 아즈랑이 썸듯 필경 전성부러 조을 든 눈이 이씨서 지씨지 못 할 모양이라

방장 무슴분부를 듯고 우스면서 이러서 가는 계집 하인의 등 뒤를 향하여

「더 년 귀가 먹었나」

하면서 벌떡이러나 탁 조우에 잇는 녀러 녀 학생이 한 가지로 박힌 사 진을 가져다가 실낱

갓흔 눈으로 눈한 번 찌안 이하고 한동안 보다가 그중에 얼핏 보이는 한 사람의 사 진을 손톱으로 톡이 고 잇더니 유위부 쪽 향던 지 손톱으로 그 사 진의 얼골을 이리 더리 그어 힘 집지 리를 더라

장지문이 득득 열니 거늘

「누구나 취선이냐」

「오 취선이안이다」

하고 우스면서 버키머리에 앓는 것은 더의 아버지 의 녀외라 그 처녀는 황망히 사 진을 감초고 잇는 터 아 조너 나 지도 안이 하고 아 조롭지 도 안이 흐모양이라

엇더나 덩희야 좀나 으나 지금 감초것은 무엇이냐 좀보자 엿의 좀보아 이것을 가지고 그리하느냐 아 마이 것이 혜경의 얼골인가 보구나 이리 케 손톱 지 리를 더리 써 쓰깃느냐 참 용렬 할 짓이다 네가 강과 천의 딸로 서그다 지용 줄 터도를 가진 단 말이나 믿음 을 좀크 게 먹어라 그런 용렬하고 편협 할 생각 을 가져서야 무엇이 쓴 단 말이나 만일이 터던 지 편협 할 생각 을 가질 것갓흐면 여보아라 석송이 갓흔 자 산가사 안이면 터 장이나 총리 터 신의 이들이나 그것도 슬 거든 외국의 황족 할 데라도 식 집 갈 생각 을 하여라

그러케 편협 할 믿음 을 가지고 무엇이 단 말이나 여보아라 덩희야 모친의 압혜서는 제 믿음 먹은 터로 말하든 덩희라 서 부친의 압히라 임의로 말을 못하고

머리를 똑속이고 있더라

〔강〕여보아라 정의야 종년 리정위를 잊지 못하겠느냐 참 민망한 일이로다 성안으로 소
풍이나 하러가거라 여보마누라도 오리잔만이 지 정의를 다리고 갔다오

하면서 저귀의 마누라를 도라본다

〔마누라〕령감도 함씩 가져오

〔강〕니가 었더케 갈슈가닛나 일이분쥬홀디

〔마누라〕그러면나도 안이가겠소

〔강〕웨 별안간 무슨 형세를 차리나 별일이 다만치

〔마누라〕호々々……

〔강〕이상스럽게 도웃네 웨그리 할오

〔마누라〕당신흔저저 집보실일이 걱정이 되어 서웃소

〔강〕나분스름이로고 정의듯는디 별말을 다 할지

● 데십이회

약현잇는왕부장의집후원에바암늦이눈갓치피엿는디셔는정히류월중순경어느도
요일오후라쥬인왕부인이혼저무료히산딩에가안젧는디

나히은한오십제가량이라니마는좀버셔지고좌우편빈모는반만치희득／＼갈앗스

일빅삼십근이나될만흔데량은아라비아종즈의도흔말이라도라고안즈면쌈을흘난
다하논지라두억기는소사나고목은음초러저며두점으로된릭밋이웃가슴에가득하
얏는디변변흔리는안록산이모양이오열골빛은심히검붉으며코는높고입살은두립
고슈염과눈섭은희소홀디다만이례격에맛지앗는두눈은가늘고도광쳐잇셔코키리
눈과흡스하고항상빙긋／＼웃는모양은무엇이라고형언할슈업는만장화괴덩어리
라

락즈우에는두제가지청々흔세죽화분을노앗고머리우에는량페하의어진을놓히걸
엇스며그것헤는대즈형축이잇는디락관은츄스김정희씨라한모동이삼각탁즈우에
는니외국인의스진철팔장이오군복과평복을슌셔잇게걸엇더라

초록회장을것어제치고동편남편의류리창을좌우로열어노으니동쪽으로는장안만
호가굽어비이논디중々히드러선종묘안소나무싹해무수흔솔길이가모혀들어셔들
고남쪽으로는바암늦이여괴디괴셔러지는솔이라창갓가이로버더나온바암나무가
지한나는장々하일에그림갓흔록음이되야쥬인이원손으로들고보는「서비리아철
도의현황」이라흔디도우에서흔드져／＼하논디

쥬인은그가는눈을잠깐감고한숨한번을쉬면서다시눈을들어디도를보더라
어디서인력거소리가쉴々나더니다시흔적이업고져々흔후원안에는석양의나무그

림즈만적구루느러졌더라

반만치열어노은류리창안으로가만히머리를드러밀었다가다시세여가면셔물리웃
는소리가은々히들니는티하나는여들살먹은남학도라히군의복장을넘고아미아게
구두를신었스며하나는다섯살이나여섯살된게집으히인티머리털은소복하게늘우
에서지니려덥혔더라

두으히는창밖에셔주져／＼하다가일시에문을열고드러와셔여기더기벌여노은신
문축을어려움업시발부면서곳부장의々즈로달녀들어남학도는을흔편으로오고게
집으히는왼편으로와셔산악갓흔부장의무릅에다럭거리를하고

〔으히〕아부지

●데십삼회

〔부장〕오－왔느냐오늘은미우오리잇섯고나

하고변々흔비스속으로올어나오는듯흔음성은아모가드러도인즈흔줄은가히알너
라부장은병곳／＼우스면서을흔손으로는남학도의여기를씩々씩다리고왼손으로
는게집으히는머리를쓰다듬더라

〔부장〕엇지하얏느냐시험은잘히느냐

〔남학도〕나는아부지나는산술이갑(甲)이라고

〔녀학도〕아부지나는오늘은침공을잘하얏다고선성님이칭찬하셔요

하고품속에서유치원의제작물을셔어녀져의아부지의무릅우에놓는다

〔부장〕오－잘되얏다

〔남학도〕또슴즈와독셔는을(乙)이구요그다음은병(丙)인티그만거복이흔데졌셔

요엇더케하면도흔논지

〔부장〕공부를잘하야지－그런티오늘은슈산담이무엇이더냐

남학도는의스엄시우스면서

「오늘은아부지남정형의리약이야요나는남정형이가되고심히남정형이하고나

과룬이하고누구가흔름흔가요」

〔부장〕누구던지다흔름흔지

〔남학도〕나는아부지남정형이가되고심지마는히군되기가소원이야아부지는히군

이닛가나는히군이되는것이뜻치

〔부장〕허...네형의말과똑갓구나

〔남학도〕그러나형은위관이지나는티장이될터인티

〔부장〕그런치디장은못할가위관이고티장이고공부하는놈이라야하느냐

녀학도는부장의무릅에서럭거리를하고전신을뛰놀면서

「아부지오들은 자미는 이 약이를 드렸셔요 더드씨와 거북의 리 약이를 드렸셔요 한 번이 가 말히 보릿가 | 었던 곳에 드씨와 거북이 있는 디오 | 아이고 어머니가 드려오 신다

패종이 오 후 두덤을 쌍치치는 디 드러오는 이는 삼십팔구세된 키 큰 부인이라 압니 마의 털을 좌우로 갈나 부치고 항적지 아니 혼눈 썩리는 위로 좀 올나 간듯 혼터어 디로 보던지 록々 지안은 괴석이 보이더라

〔부인〕 또 아바지께 만와 잇지

〔부장〕 안이야니 가지 금학교의 성적을 무러 보노라고 그리 힘소자 | 인제는 아부지도 공부히야 지다 밧그로 나가 놀이라 잇다 운동이나 할러가자

〔남학도〕 아이고 도와

〔만세!〕

두으히는 희々 락々 항야 압셔거니 뒤셔거니 문 밧그로 나가 더니 또

〔만세!〕

〔옴바나 두〕

항고 부르는 소리가 멀니 들니더라

〔부인〕 아 무리 보아도 당신은 희들을 너 무스랑히요

부장은 빙긋 / 우스면서

「그런 것도 안이지 마는 희들은 사랑하는 데 밧게 더 잇소」

〔부인〕 그러나 여보 오속담에도 엄부조 모라고 할 앓는 디 당신은 사랑만 할 시 잇가 참 밧 구어 되었소 나는 항상 희들을 꾸짖기만 할 니 피음사는 자는 나 하나 뿐이지오

〔부장〕 그러케 녀름 우엄하게 마시오 | 여보 오선성님이 리로 안즈시오

항고 썰々 우스며 너러셔 락々 우에 노인 영어 독본을 가져다가 정신을 슈습하고 사도 리 색긴 영어를 이리 기 시작하는 디 부인은 것 해안 져다가 밧음의 잘못되는 것을 곳치더라

이것은 부장의 일과 | 라 유신당시에 일기 무변으로 출신한 자로 국스에 분주하야 외국 말을 비 흘름도 업섯더니 작년 브러 휴직이 되야 조곰 결을 었으면 위선 영어 공공부할 작당인 디 교스는 손 갖가 히 잇는 부인 춘자라 위되 지명하는 집의 딸인 디 오리 영국 룬돈 에 서 류학하고 로 영어는 원만 한 남조보다 우승을 썩 안이라 룬돈의 공기를 다 년 흡슈한 부인이라 무슨 일이던 지 물론하고 서양 풍속을 숭상하야 가당의 정리라던 지 조 데의 교 육이라던 지 모다 보고 드른 디로 할라고 할나 일이다 믿음 디로 되 지 안이 할고 비복들은 다른 곳에 안져서 조롱하기가 레스오 희들은 자연히 고 밧게 구는 부친만 따르고 또 남편은 무슨 일이던 지 다 동양 풍습이 낫가어 좌어 우잔 부인의 불평 할 지료는 한 두가지가

부장은천신만고하야한장은겨우다넘고인제번역을하야보라고하든초에문을덜켜 열고쳐녀하나이드러오나나흔불과십시오제라부장이붓치갓흔손으로쇼고만영어 독본칙을들고넘는모양이그리우습던지빙곳 < 우스면서

「어머니동안아저머니가오셨셔오」

〔부인〕그리

하고보이는듯마는듯흔눈살을잡으면서잠간부장의얼굴을치어다보는디부장은천 사히나러셔々の즈를치여노으며

「이리드러오십시사고엿주어라」

● 데십스회

드러오논이는사십오륙세가량이나되여보이는점자는부인이라안질이낮든지무식 안경을쓰는디싱긴모양은얼핏보아도평양이총집에서보든스름과흡스하녀이는곳 왕부장전처의형청조인디중추원장권형슈의부인이라거번에중미가되야해경으로 하야금리정위와인연을밧게할것이곳이부인의쥬션이라 부장은빙곳웃고나러셔々の즈를권하면서

「자— 이리로안즈십시오오리가뵈옵지못하얏습니다 령감씨셔는항상분주하신

가요

〔청조〕예— 이즘은나무리양하기에자미가나셔々항상후원에나가게시답니다아직 연셋은일음니다마는항상즈궁하시던셔류셋이만말하구요또장미셋도남어잇스 오니한번구경하시러오지안이하신다고루초말씀을하셔요

하고무식안경으로출즈부인의편을향하더라

출즈부인은청조부인을볼썩마다성각이나흔즈령감의므음을점령하고나흔즈이집 의권리를잡으라하는디전처의형이라는사름이자조출입하야죽은전처의덩형을령 감의눈압헤그려낼뻔안이라입에담어말하기노슬헌해경과유모로과에게동정을표 하는것이심히불쾌할지라

지금은그해경과유모로과가다나갓스니치외법권(治外法權)을것어간것은척이안 심이되나이썩사지도더무식안경의얼굴을볼썩마다무덤가온디잇는사름이나와서 나와쥬부의권리를닷고디가변기훈교육의방법과가정의경륜사지라도다도고져 하는듯하야즈연히므음이불쾌하야지더라무식안경은잡랑속에서과즈한병을셔어 디여노으며

「약소하오나의일이와우경에게주십시오아직학교에서안이와습닛가그리하고 이것은우경이를」

하더니 차를 가져고 오는 처녀에게 조양화를 사 인화음을 주더라

「미양오실씩마다 그리하시니 미우미안됩니다 오죽 기쁘겠소마는」
하고 주인부인은 그과 조병을 탁조위다 바다 늦더라

맛춤계집하인이와서 적십자사에 단이 는량반이 마님 석외압기를 청하 다 흠이 부인은
고기를 뜻대 하고 방문바나 올씨에 뒤로 쓰라나 오는 계집은 히를 손으로 불너 무슨 말을
소곤 / > 하너 그너 조는 문사 작뒤에 은신을 하고 비밀 혼말을 서서 듯는 더 부인은 복도
를 지나 응접실로 향하야 가더라 그너 조옥경이 는금년이 열다섯살 인티 이것도 견쳐의
소성이 지마는 그형혜경은 그리박티 하면서 도옥경은 미우사랑하 는지라 침묵하고 온
순흔혜경을 심스가 온 당치 못하양으로 잘 못아는 부인은 혜경이 보다 활협 혼옥경이 가
조그성미와 비슷함을 도화하야 부장은 가장혜경을 사랑할지라도 부인은 만티로 옥경
이를 사랑하야 조그의 부하를 만들더라

세상사름의 성질이 라는 것은 남의 시비를 도라 보지 안이 하고 닢 믿음 디로 하는 자도 있
고 혹 은 남의 평판을 쓰려서 닢 믿음 디로 못하는 자도 있스되 필경 명예와 리익을 다 잊어
나 도와 하는 일을 흘적에 남이 또 혼못 생각하 기를 바라 는 것은 사름의 상정인 디이러
흔사름은 귀어히 아첨하 기를 도와 하는 법인 중이 부인은 남 조 보다 우승함은 고사하고
서양의 르리법에 드러서는 명망이던 하에 혁조흔 그 남편 부장에 게 도지 안이 하나 그

러나 부장은 도쳐에 천고가 만코 맛나는 사름마다 양망하 것마는 의정업는 부인에게는
복종하는 사름도 업고 독불장군이 된니 상에는 조연히 아첨하는 사름을 도와 하야 사 환
하는 비복들도 아련할 줄 모루는 것은 모조리 축출을 당하 고 다만 스법절이 강명하 며
아렴 잘하는 것이 다 심복이 되는 고로 어 린 옥경일지라도 귀어히 형을 위함은 안이로
디형을 비방하야 게모의 눈에 가 드는 줄을 써 다 른니 후브터 필경은 고조 절하 는 버릇
이 성겨유모로 파에 게면 박을 당하 기도 한 두 번이 안이나 그러나 형혜경이 가 식집가던
날서지라도 게모를 위하야 고 발하기로 일을 삼엇더라

동편마루들스지 창밖기 빗겨서 서드 른즉 변々히 큰 비스속에서 울어나 오는 듯하야 부
지의 말슴소리와 엄순흔이 모의 우슴소리가 차례로 들니 더니 나 종에는 말소리가 점々
가늘어지며 「식어머니」 「혜경이」 하는 말이 드문 / > 들니 닢 디엿듯고 잇는 처녀는
점々귀를 기우리더라

● 데심오회

「학도야 / > 청년학도야 나아가세 / > 발빠르게 나아가세」

하고 발거름을 맛초아드러오논 앓가만세 브르며 나아가 든 남학도는 눈결에 문박기 빗
겨섯는 너 조를 확도라 다 보논 디 그너 조가 손짓을 하며 서 말나하 는 의미로 머리를
흔들어 보이여 도나논 모른다 하고 「누나 / >」 하며 다라와서

「거기서 무얼 할야」
할면서 미여 달녀 못다 가더의 누의가 가만이 있거라 할는 의미로 자조머리를 흔드느것
을

「무엇이」

할고 못는 바람에 그녀는 눈사살을 씹흐리고

「아이고 성가시게도군다」

할고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속으로 아무것도 다들 냐다 할고 억지가 귀뒤에 서지을나가
서분주히 다라가더라

「하..... 누나가 도망잔다」

할면서 남학도놈이더의 부친의 방으로 드러가다가 손님의 얼굴을 치어다 보더니 빙긋
웃고 잠깐 머리를 닦듯 할면서 곧 부친의 무릎에 가미여 달녀더라

「청조」야-의 일인가 한동안 보지 못할았더니 또적지안케 첫구나 미일 학교에 단이논

가요-을 치산술이 일등이야 공부 잘할았구나 인제야 부지할고 어머니 할고 아주 먼
네집에 한번와야지

「부장」은 경이논 어티로 갔느냐오- 그리이 것보아라 아주 먼이가 이런것을 주셨다미
우도치호.....

할고 파즈스 병을보이면서

「어먼이논 어티케 되얏니 옛티손님이 계시냐 아주 먼이가 그만가신다고 가서 말할
고오나라」

나가논-히의 등뒤를 바라보다가 무척안경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느쥬인 부장은

「그러면 유모의 일은 그럭케 작당 할고 아무썬록 규각안나게 그러케 흡시다 실은 저
도그런일이 업스면 면도 할줄로 생각 할고 그러케 안이 할라고 할았더니 혜경이가 여러
번 말도 할고 저도그레기가 소원이라 할기로 무엇했더니..... 예-참그리 할 옛스
면도 할듯 합니다」

말을치 못츠지 못할야서 드러오는 부인 춘조는 무척안경을 힐끗보고

「발서가셔요 맛춤다른 손님이와서 피시고 말씀 못할았습니다 또 무슨 전설회의의
론이지요 일도 될지 말지 할것마는 차조 온디 접을 할고 유작을 안이 할슈잇습닛가 무
경이도 잘잇나요 혜경이가 업스닛가 한번도 놀너오지안이 하요」

「청조」이 사이는 몸이 압흐다 고 아무티도 못갈셔요

할고 잠랑을 들고 나서서나

부장도 썬흔니러셔사

「어티 잠잔디고 서지운 동점 갖다올가의 일이는 경이다 운동 할러가자」